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19년 5월 7일(화) 14: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통예술분야 연구생 선발을 위한 심의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서류 심의가 첫 번째 단계이고, PT 및 인터뷰 심의가 두 번째 단계였다. 두 단계에 걸친 심의는 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작곡/지휘, 전통극, 연희, 소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여 두 단계에 걸친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서류 심의를 중심으로 한 첫 단계의 심의는 먼저 제출된 신청 서류에 대한 위원별 전수 검토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전수검토제도는 심의위원 간, 토론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를 심의위원들이 지원신청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각자의 의견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심의위원들이 직접 대면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서류 심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단계의 심의는 신청 사업에 대한 발표와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안 서류에서 모호했던 부분이나, 좀 더 부연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응답 역시 함께 이루어졌다.

두 단계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기준이 되었던 심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신청자의 예술 역량 및 본 사업과의 부합성’, ‘신청자의 연구와 창작 계획의 충실성’, ‘신청자의 연구 및 창작물의 성취도’가 그것이었다. 차세대 유망 예술가의 수준 높은 창작 활동과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본 사업 목적에 따라 특히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것은 ‘신청 사업의 독창성’, ‘계획의 충실성’, ‘신청자의 열정과 성장 가능성’ 등이었다.

제출된 신청서들은 전반적으로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 흥미로웠다. 그 형식은 ‘국악 합창곡’, ‘연습곡’, ‘명상 음악’, ‘장례’, ‘굿’, ‘민요’, ‘춤’ 등에 걸쳐 있었다. 그리고 이 형식에 사랑, 이별, 죽음, 슬픔, 소수자 등의 이야기를 담으려 했다. 신청서 대부분의 형식과 내용에서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신청자들이 내세운 창작 주제에서 일정한 경향이 엿보이기도 해서, 심의의원들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 정조가 대체적으로 이별, 죽음, 슬픔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편향 혹은 유행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에 대하여 심의의원들 간에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신청자 한명 한명이 모두 개성과 열정이 있었지만, 본 심의위원들은 총 3명의 신청자를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선정이 된 신청자들은 공통적으로 서류 내용과 면접 과정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심의의원들은 서류 내용에서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면접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한 신청자들에게 주목했다. 이들은 신청 사업의 독창성과 계획의 충실도, 그리고 이를 수행할 역량을 잘 드러내 보여주었던 것이다.

충분히 선정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아쉬움이 들기도 했다. 신청 서류 내용에서 모호했던 부분이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했거나, 그 계획의 충실성에서 아쉬움을 남긴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은 젊은 예술가들의 수준 높은 창작 활동과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강조점이 두어진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떤 성취 혹은 창작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중요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심의의원들은 본 사업이 젊은 예술가들의 육성에 강조점이 두어진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업이고, 이후 보다 확대되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이 사업과 관련한 홍보 작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넓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홍보 작업에는 이 사업이 갖는 독특함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조사·연구(강의, 네트워킹, 멘토링, 개별리서치) → 중간발표(실연-쇼케이스) → 심화 연구(멘토링) → 최종 발표(공연)’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심의 사업이라는 점을 보다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당부와 고마움의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신청 서류 작성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하고 싶다. 해당 사업의 취지는 물론이고,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서류 작성에 임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젊은 예술가들의 머리와 가슴에 품고 있는 창작의 씨앗들을 신청서와 면접을 통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그 무리한 일을 본의 아니게 진행했다.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젊은 예술가들은 창작의 씨앗을 주목할 만한 꽃으로 피워낼 것이다. 그 도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여전한 고마움과 찬사를 보낸다.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위원 일동